

* 2009년 5월 5일 오전 7시 18분-7시 51분

이날은 직접 오시지 않고 마음속으로 들려주신 말씀으로 ‘이때’란 주제를 가진 시적인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 이 때 >

세상을 향해 빨리 내달렸던 너희들아.

이제 나에게로 빨리 달려오라.

너희들에게 내가 한 비밀을 말하였느니라.

이때가 얼마나 귀한 때인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시대만

생각하여 보려하기에 그 귀중함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다.

이때는 내가 기다렸던 때이며, 내 아버지가 기다렸던 때이며,

너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도 기다렸던 때가 아니냐.

너희들은 정녕 모른다.

이때를 위해 내가 얼마나 분주히 준비했는지,

이때를 위해 나의 발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이때를 위해 나의 입술이 바짝 마르도록 얼마나 조급했는지,

정녕 너희들은 나의 심정을 모른다.

나의 천사들이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오가며

나의 이날을 얼마나 열심을 내어 준비했는지

너희 육이 있는 자들은 정녕 모른다.

너희 선배들이 이때를 기다리며 죽어간 날이 한 두 해더냐,

일 이 백년이더냐.

이 땅(우리나라)에 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바로 엿그제 같은데,

그때 역시 그들의 피눈물로 그 목숨을 빼앗기며

이 날을 위해 그 복음을 지키지 않았더냐.

나의 사랑으로 단장한 너희들, 그

사랑의 단장이 그리 깊은 의미가 그리 중한 의미가 있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얼마나 내가 몸부림하며 얼마나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몸부림하며 그 생명을 빼앗기며

그 몸이 찢기우기까지 하며 이때를 위해 복음을 퍼 왔는지

너희들은 정녕 알아야 한다.

그 고통의 순간이 너희들의 인생 일 이 십년

또는 이 삼 십년으로 끝났겠느냐.

그들이 전 인생을 걸고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바로 이때를 위해 피 흘리는 길을 갔음을

너희들은 정녕히 깨달으라.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신부된 자들,

너희들은 이 잠깐의 고난을 부끄러운 시간으로 만들지 말라.

당당하게 생명 길을 간 너희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지금 너희 시간들을 부끄럽게 보내지 말라.

담대하고 요동치 말라.

굳건 하라.

이제 내가 곧 너희들을 데리러오지 않겠느냐.

이 희망의 때에 이 기다림의 끝에 누가 요동하며

그 입술을 함부로 놀리느냐.

나의 때가 되어 내가 신부를 데리러오고 있는데

너희들 단장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발이 빠르게 달려가는

너희들은 누구냐.

이 날이 얼마나 엄중한 때인지 너희들은 모르느냐.

어서 내게 돌아오라.

나에게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라.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신랑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만 오겠느냐.

그 나라의 희락과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너희들을 나의 하늘궁궐에서 사랑치 않겠느냐.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되어, 내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어,

나의 하늘궁궐에서 나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때를 놓치지 말라.

고난의 때를 기쁨의 때로 삼으라.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으로 삼으라.

나는 너희들로 인해 애가 타는구나.

너희 스승을 생각하라.

그를 생각하고 애타함을 가지라.

나의 애타는 심정을 그렇게라도 깨달으라.

나의 여인들, 내 단장한 신부들이여.

나는 기쁘면서도 슬프구나.

수많은 나의 기다리는 자들로 인해 기쁘고,

나를 외면하고 사망의 길 인줄도 모르고

저리 빨리 세상으로 달음질하는 자들로 인해 나는 슬프구나.

나의 때의 그 깊은 비밀을 너희들은 정녕 온전히 깨닫고

엄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이천년의 그 긴긴 기다림의 끝에 내가 나팔을 불 때를 위해
너희들을 이 새로운 복음으로 불렀느니라.

너희 스승을 통해 너희들을 부른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아니냐.

나 예수가 아니냐.

내가 그를 통해 너희들을 불렀느니라.

나의 준비된 때를 너희들과 함께 맞이하자고 내가 부른 것이 아니냐.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희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리하여 나의 심정을 깨달으라.

나의 기쁜 심정을, 나의 애타는 심정을, 나의 슬픈 심정을.

느낄 수 없다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통해서라도 깨달으라.

깨달은 자는 온전히 나의 신부로 단장하는 자가 되리라.

심정의 단장을 하는 자가 되리라.